

간편현금결제시장 97% 점유... 연평균 매출 48% ↑

(3년간)

IPO간담회-세틀뱅크

SettleBank

4·5일 청약, 15일 코스닥 상장
G마켓·카카오페이 등이 고객

간편현금결제 서비스 시장점유율 1위 기업 세틀뱅크가 이달 중순 코스닥에 상장한다.

세틀뱅크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4, 5일 양일간 청약을 실시하고 오는 15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세틀뱅크는 국내 최초 간편현금결제 및 가상계좌 서비스를 출시한 전자금융결제서비스 전문 핀테크(Finance+tech)기업이다. 간편현금결제, 가상계좌, 펌뱅킹, 전자결제(PG) 서비스 등이 주요 사업이다. 현재 국가 주도 간편현금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운영하고 있다.

세틀뱅크의 간편현금결제시장 점유

율은 97%다. 간편현금결제란 결제 플랫폼상에 최초 1회 본인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결제 시 패스워드, 생체인식 등의 간편 본인 인증을 거쳐 실시간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세틀뱅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 현재 G마켓, 11번가 등 대형 E-커머스는 물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대다수의 간편결제 페이가 주요 고객이다.

세틀뱅크가 점유한 현금 기반 결제 서비스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은 경쟁력이다. 세틀뱅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은행에서 정하는 보안성 심의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유일 24시간 CS,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 중이고, 전산장애 및 오류발생 방지를 위한 전구간(네트워크, 서버, DB, 회선 등) 이중화와 실시간 백업 시스템도 구축했다. 국내 전(全) 21개 은행과 연결되는 강력한 네트워크 체계와 은행 시스템 직접 운영 노하우 기반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것도 강점이다.

간편현금결제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이다. 간편결제 거래규모는 2016년 약 26조8000억원 수준에서 2018년 80조1000억원으로 3년 새 약 2.5배 성장했다. 현재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신용·체크카드가 91%이지만 정부 주도의 현금 사용 활성화 방안으로 제로페이 운영,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카드 15%, 현금30%, 제로페이 40%) 등으로 현금 사용량은 증가 추세다.

이경민 세틀뱅크 대표는 "글로벌 트렌드에서도 현금 결제 우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서 "정부 정책과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간편현금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 기반 간편결제서비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계좌 서비스에서도 세틀뱅크의 점유율은 67.54%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 대다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기관에서 세금 및 범칙금 납부에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틀뱅크는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

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매출액 47.8%, 영업이익은 33.2%다. 또 지난해 매출액은 2017년 대비 45.3% 성장한 571억원, 영업이익은 40.4% 성장한 132억원이다.

이 대표는 "세틀뱅크는 압도적 우위의 기술경쟁력과 은행시스템 운영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현금 결제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현금결제 시장에 맞춰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자금은 금융서비스 관련 우량 기업의 인수합병(M&A)과 오픈형 간편현금결제 서비스, 수납요금 간편스마트 납부 서비스, 비대면 계좌플랫폼 서비스 론칭에 사용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 진출도 목표하고 있다.

세틀뱅크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수요예측을 거쳤고 일반청약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약 700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 공동 주관을 맡았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이경민 세틀뱅크 대표이사. /세틀뱅크

NH투자증권, 1%의 수익보다 1%의 고객만족 '비효율의 미학'

여의도 통신

'투자, 문화가 되다' 홍보 일환
팝업 레스토랑 '제철식당' 운영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자주 출몰(?)한다는 식당에 갔다. 지난달 문을 연 NH투자증권의 팝업 레스토랑(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는 레스토랑)인 '제철식당'이다.

NH투자증권이 올해 새로 선보인 브랜드 슬로건인 '투자, 문화가 되다'를 홍보하기 위한 맛집 마케팅이다.

가게는 소담했다. 디귤(디)자태이블은 주방에서 고객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덕분에 차례로 나오는 네 가지 코스요리는 적절하게, 적당한 온도로 눈 앞에 놓였다.

셰프는 새로운 요리가 나올 때마다 요리에 사용된 재료, 조리 방법 등을 꼼



지난달 1일 NH투자증권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레스토랑 '이타카'에서 '제철식당'을 열었다. /손영지 기자

꼼하게 설명했다. 전국 농협에서 올라온 제철 식재료로 만든 요리다.

요리에 어울리는 술도 한 잔씩 했다.



자연농법 돼지고기, 토마토크림스튜와 꾸스꾸스 샐러드(위) 식사의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한 페어링 주류가 3가지 코스에 맞춰 준비돼 있다.

점심시간, 달큰한 술과 따뜻한 음식들로 배를 채우니 '만족스럽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기자가 선택한 메인 요리는 토마토크림소스 베이스의 돼지고기 스투였다. 주재료인 돼지고기는 자연농법으로 키웠다고 셰프는 설명했다.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돼지고기는 대부분 공장식 사육시스템으로 생산된다. 철망을 둘러싼 시멘트 바닥에 돼지를 가둬놓는 식이다. 갓 태어난 아기 돼지는 이빨과 꼬리를 자른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돼지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서로 물어뜯기 때문이다.

자연농법은 반대다.

충분한 공간에서 돼지를 기른다. 돼지들은 톱밥과 흙이 깔린 돈사를 자유롭게 거닌다. 비료 역시 자연식이다. 이러한 돼지들은 이빨을 뽑을 필요도, 항생제를 맞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비용도 높고 많은 돼지를 생산하지 못하니, 자본주의에 비추면 '비효율적'인 사육 방식이다.

아이러니하게 NH투자증권의 새로

운 비전 역시 '비효율'을 표방하고 있다. 셰프는 적은 고객에게 집중하고, 시간을 들여 요리를 설명하는 제철식당처럼 말이다. 사용되는 식재료 역시 다른 것보다 많은 땅과 노력이 배인 재료들이다.

증권사는 1bp(0.01%포인트) 싸움이 치열한 공간이다. 수 백 억원의 딜(deal)을 따내기 위해서는 경쟁자보다 0.01%포인트라도 낮은 수수료를 제시해야 하고,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선 0.01%포인트라도 더 많은 수익을 약속해야 한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이 경쟁에서 한발짝 물러서기로 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불안한 금융상품보다는 고객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의 수익보다는 1%의 고객 만족을 더 추구하겠다는 약속이 제철식당에 담겨 있다. /손영지 기자

제약·바이오 주가 예측 불가능 '개미 무덤' 우려

>> 1면 '코스닥 개미 잡은...서 계속

지난달 25일 10년간 에이치엘비에서 일해온 김하용 대표이사(가)가 '일신상의 이유'로 임기를 끝내지 않고 퇴직하면서 0.19%의 지분을 판 것이 공시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에 따라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지난달 27일 에이치엘비 공모도 거래량은 33만5931주로 연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28일까지 이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52주 최저가를 경신했다. 계열사인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역시 이를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다.

메지온은 임상 3상 실패 소문이 시장에 퍼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후 박동현 메지온 대표이사는 지난달 28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진화에 나섰지만 "리스크가 없는 신약개발은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대거 출회됐다.

이들 동안 메지온의 수익률은 마이너스(-)45%다. 지난 27일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공모도 거래(9만6232주)가 이뤄지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해당 기간 4492억원어치의 시총이 증발했다.

에이치엘비에서 시작된 투자심리 위축은 바이오주 전반에 걸쳐 퍼졌다.

지난달 28일 코스닥 시장에서 신라젠(-5.54%), 셀트리온제약(-2.34%), 헬릭스미스(-11.08%) 등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이 별다른 이슈 없이 급락했다. 엔지켐생명과학(0.85%), 제넥신(-9.13%), 에스티팜(-0.57%), 인트론바이오(-2.42%) 등 바이오 기업들은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 또다시 시작된 '개미 무덤'

바이오주의 견잡을 수 없는 추락은 코스닥을 또다시 개미무덤으로 만들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업종의 시총 비중은 2010년 9.6%에서 올해 5월 기준 26.5%로 늘어났다. 제약·바이오 업종에 많은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문제는 대다수 제약·바이오주 주가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6월 28일 기준 코스닥 제약 업종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09.44배다. 업종 시가총액이 순이익의 200배를 넘었다는 의미다. 코스피 시장의 평균 PER(12.34배)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가는 소문에 민감하다. 임상 실패와 같은 미래 가치 훼손 이슈가 발생하면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은 '정보 불균형'의 위치에 있다.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르면 바이오 기업의 임상 결과는 의무공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발표하지 않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알 방법이 없다.

실제로 에이치엘비는 주가 급락을 초래한 기업설명회에서 이번 임상시험 결과를 설명했지만 공시로 알리지는 않았다. 메지온은 기업설명회를 금요일 오후 3시에 열었다. 사회생활을 하는 투자자들은 참석하기 힘든 시간이다.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자마자 메지온의 주가는 급격하게 빠졌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유를 모른채 하락장을 맞았다.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은 공모도 세력에 속절없이 당했다. 에이치엘비, 메지온의 공모도 거래규모가 연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몫은 미미했을 것으로 지난 1분기 기준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에서 전체 공모도 거래액 중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1.3%였다. /손영지 기자